VOICEYE
voiceye.com

장애인의 혈당관리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 당뇨병에 대해 알아봅시다

+ 당뇨란 어떤 병인가요?

-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혈액 내에 포도당 농도(혈당 수치)가 높아지는 병**입니다.
- 당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여 병의 이름이 당뇨입니다.

+ 인슐린이란 뭔가요?

- 인슐린은 음식물 섭취 후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에게 넣어줘서 힘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 만약 인슐린이 없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포는 포도당을 받지 못해 힘이 없고 혈액 내에 포도당 수치는 올라갑니다.

+ 당뇨는 왜 생기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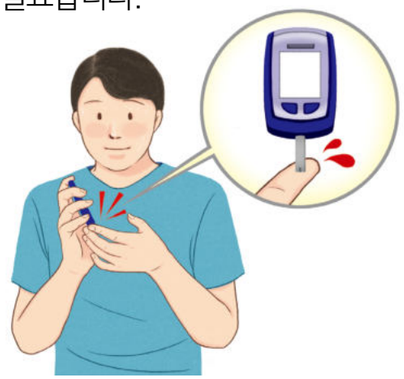
다양한 위험요인이 당뇨병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혈당수치는 얼마가 정상인가요?

- **정상**혈당수치는, **공복혈당**을 재었을 때 99mg/dℓ 이하입니다.
  공복혈당이란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할 때의 혈당값입니다.
  * 금식이란 음식뿐 아니라 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 **당뇨전단계**는 공복혈당수치가 **100~125mg/dℓ**일 때를 말하며, **126mg/dℓ 이상**인 경우 당뇨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당값(mg/dℓ)

시간	정상	당뇨전단계	추가검사
공복	99 이하	100 ~ 125	126 이상
식후 1시간	180 이하	200 이상	200 이상
식후 2시간	140 이하	140 ~ 199	200 이상



2 당뇨병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나요?

+ 당뇨병인지 알 수 있는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삼다(多)증상

다음, 다뇨, 다식

전신증상

체중감소, 피로감, 식곤증 등

기타증상

시야 흐림, 음부 가려움증, 구내염, 손발 저림, 피부감염 등

* 위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뇨병이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 당뇨병이 있으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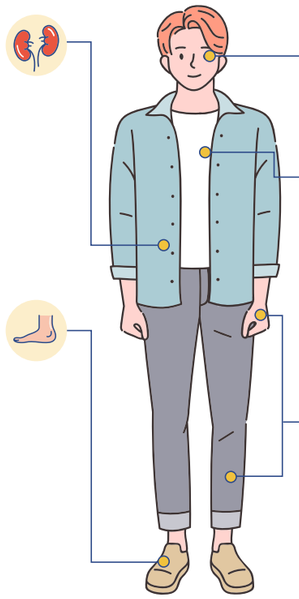
당뇨병은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많습니다.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 유병기간이 긴 경우 발생률이 높아지고, 단백뇨, 부종, 고혈압, 신기능 저하, 신부전증 등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성 족부질환

'당뇨발'이라고 하며, 신경병증과 하지의 말초혈관 질환과 관련한 궤양, 감염, 조직 손상, 괴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심근병증, 심부전증 등의 위험인자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고, 팔·다리가 찌릿하거나 저린 증상이 생깁니다.

+ 당뇨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당뇨 전단계이라면?

- ✓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일 때 당뇨병 진단을 받으나, 이때부터 관리하면 너무 늦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 공복혈당이 110mg/dl 이상이라면 당뇨병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때부터 혈당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므로 **당뇨전단계** 때부터 한번쯤 병원 검사를 받고 당뇨환자에 준하는 규칙적인 식사 및 주기적인 운동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체중을 5%만 감량해도 당뇨병 발전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당뇨전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면 당뇨병 위험이 줄어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요?

+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당뇨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검사는 무엇인가요?

혈당측정, 혈압측정, 혈액검사(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등), 소변검사(단백뇨 등), 눈(안저)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 당화혈색소란 적혈구 내의 혈색소가 어느 정도 당화되었나를 보는 검사이며, 이 검사를 통해 3개월간의 평균 혈당수치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 검사 외에도 평소에 피부와 발관리, 금연 및 절주를 해야합니다.

+ 당뇨 환자는 혈당은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나요?

- 혈당조절이 잘 되면 주 2~3일 마다, 하루 2~3회 측정하되 검사시간을 다르게 하여 측정합니다.
  (예 : 식전 검사만 2회 하지 말고, 아침식전 검사 1회, 식후 2시간 검사 1회 하기 등)

- 아침 공복, 매 식전, 식후 2시간, 취침 전에 측정하고,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평상시와 다를 때에도 추가 측정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인이 혈당을 확인할 때 유의 할 점!

- ☑ 가능하면 감각이 없는 손가락에 채혈침을 찌르지 않습니다.
- ☑ 매번 같은 부위를 찌르면 피부 조직이 변할 수 있으므로 검사 부위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 ☑ 심한 설사나 구토 등을 한 후에는 곧바로 혈당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 ☑ 바늘을 찌른 후 피가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짜 내지 않습니다.
- ☑ 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채혈 후 충분한 지혈이 필요합니다.
- ☑ 모든 자가혈당측정기에는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 ☑ 병원 검사실 혈당검사와 검사방법이 다르므로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인에게도 해당하므로 채혈 시 유의하세요.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인의 당뇨관리 Q&A

Q. 장애인이 당뇨에 잘 걸리나요?

A **당뇨는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 다빈도 질환의 순위가 높습니다.

A 당뇨가 장애의 원인 질환이기도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애 이후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유병율이 높습니다.

Q. 장애인이 당뇨 합병증에 걸릴 확률이 높나요?

A 장애인은 비교적 신체활동이 떨어지고, 내장지방의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당뇨의 유병률과 합병증의 비율이 높아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A 뇌병변 장애인이나 척수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이미 감각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뇨발이나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의
합병증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인의 당뇨관리 Q&A

Q. 그럼 장애인의 당뇨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A 당뇨병 증상 중 하나인 손발저림은
기존 장애질환에 의한 신경병성 통증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당뇨병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A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당뇨증상만으로 당뇨를 의심하거나 자가 혈당수치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A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진단 및 예방, 그리고 진단 이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4 당뇨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입니다.

1. 식이요법

배고프지 않을 때도 있는데 끼니는 꼬박꼬박 먹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끼니를 거르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4~5시간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제 때**에, **천천히, 적당한 양**을, **골고루** 식사해야 합니다.

가끔 간식이 먹고 싶어요

- 간식은 식사를 한 뒤 2시간 정도 후에, 우유군 또는 과일군으로 위주로 먹습니다.
- 당뇨가 있는 분이 평소간식으로 단순당질(쥬스, 젤리, 사탕 등)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곡류 및 전분류의 간식이라면 밥을 조금 덜 먹도록 합니다.

술은 마셔도 되나요?

- 간질환, 이상지질혈증(고콜레스테롤 증), 비만한 당뇨 환자는 절대 금주합니다.
- 음주 후에는 저혈당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음주하게 된 경우 다음날 아침에는 혈당을 측정하고,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합니다.

단 맛이 꼭 필요할 때는요?

- 요리할 때는 천연 단맛 재료를 사용합니다. (양파 등)
- 육류 양념도 과일을 활용합니다. (사과, 배, 파인애플, 키위 등)
- 가능하면 설탕과 같은 단순당질 대신에 당분이 없는 인공감미료를 사용합니다. (스테비아 등)

달게 못먹는다면, 조금 짜게 먹어도 될까요?

- 당뇨는 염분 섭취 줄이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은 소금과 간장 등 염분을 줄여서 저염식으로 요리해야 합니다.
- 국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등 염분 섭취를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소금, 간장등 염분은 반으로 줄이기

향신료로 맛 내기

양념조림 대신 구이나 찜

염장음식 적게 먹기

건더기를 먹고 국물은 남기기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인의 혈당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시 주의사항!

-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식이요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 다만 자신의 장애와 신체상태, 사용중인 약물에 따라 상호작용으로 인해 섭취가 제한되는 음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운동요법

운동은 왜 해야 할까요?

- 열량(칼로리)을 소모시켜 직접 혈당을 떨어뜨립니다.
- 식사요법의 효과를 높여 장기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 스트레스 해소시켜 정신건강을 도와줍니다.

+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가 운동

준비운동 및 마무리 운동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어깨에 도움이 되는 운동	다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

- **자가 운동 QR코드**

  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자가운동 포스터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운동법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따라해 보시면 좋습니다.

운동할 때는 꼭 체크하세요!

01	02	03
체력 확인, 저혈당 예방용 간식을 준비합니다.	준비운동 및 정리운동을 반드시 합니다.	혈당수치를 확인합니다.

- 지나친 운동은 저혈당 위험이 있습니다.
- 운동 하기 전 혈당이 70mg/dℓ 이하, 300mg/dℓ 이상이면 휴식합니다.

운동 전 혈당치	운동해도 되나요?	왜 그런가요?
< 70mg/dℓ	아니오	저혈당이라 위험합니다.
< 100mg/dℓ	조심	운동을 해야 한다면 먼저 간식을 먹고 하세요.
100~250mg/dℓ	예	운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리세요.
> 300mg/dℓ	아니오	급성 합병증(케톤산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 250mg/dℓ 그리고 케톤 검출	아니오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혈당관리를 위한 장애인의 운동방법!

- 감각과 운동기능의 저하로 인해 낙상위험성이 높고 많은 경우에서 제한된 자세로만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혈당관리를 위한 운동을 할 때 처음부터 적절한 운동강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않은 사람은 심폐기능, 근육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장애인 역시 당뇨병이 생겼다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 일괄적인 운동법을 따르기보다는 장애인의 각각의 상황에 맞도록 운동방법을 정합니다.

- **운동을 계획할 때는**
  나에게 맞는 준비 운동,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근육강화 운동, 정리 운동 등을 생각해서 시행해 보도록 합니다.
-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매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주 2~3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못지 않게 휴식도 중요합니다.
- **운동을 꼭 운동장에서만?**
  운동은 헬스장 등 정해진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맞는 운동을 찾았다면?**
  강도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주 150분 정도 시행합니다.

+ 같이 해봅시다 (발관리-운동)

손 쉬운 발 운동 : 1일 3~4회

- 발가락 올렸다 내렸다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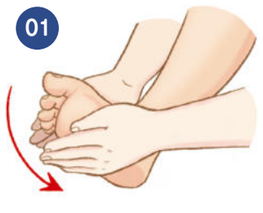
- 엄지 검지 비벼주기

- 발목으로 이름쓰기

- 발가락 벌리기
- 발가락 부딪치고 비비기

- 발꿈치 근육 밀어 올리기

+ 같이 해봅시다 (발관리-마사지)



01 발등과 발바닥을 맞잡고 쓸어내리기

02 발 옆 안쪽과 바깥쪽을 쓸어내리기

03 발바닥 용천 부위 눌러주기

04 발가락 사이사이 손가락으로 눌러주기

05 발등과 발 뼈 사이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기

06 발등 엄지손가락으로 안쪽, 바깥쪽 문지르기

07 발등에서 발목으로 쓸어 올리기

08 복사뼈 둘레 큰원으로 돌리기

3. 약물요법

약물요법은 언제 하나요?

-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시작합니다.

먹는 약만 복용

먹는 약과 주사약(인슐린) 함께 사용

주사약만 사용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약물요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물요법을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약물 요법을 할 때 주의점

- 약물로 인해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간과 용량을 확인하고 복용합니다.
- **규칙적으로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약효를 확인할 자료)
- 약 복용을 깜빡하고, 시간이 너무 지났다면 복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2회분 복용은 절대 금지)
- 스스로 판단하여 복용중단을 하는 것도 안됩니다.
- 다른 약을 먹을 때는 꼭 의사와 상의 후에 복용합니다.
  (당뇨약과 상호작용하여 혈당을 올리거나 내리는 약물이 있음)
- 병원 진료를 가면 반드시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 건강보조식품 중 일부의 당뇨병이 완치된다는 허위 과장광고로 약복용 대신 보조 식품만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먹는약 말고 주사로 맞는 인슐린도 있던데, 이건 어떨 때 사용하나요?

- 인슐린 자가투여 주사는 인슐린이 부족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 제2형 당뇨환자 중에서는 경구용 혈당강하제(먹는 약)가 반응이 없을 때, 수술전후나 임신 혹은 감염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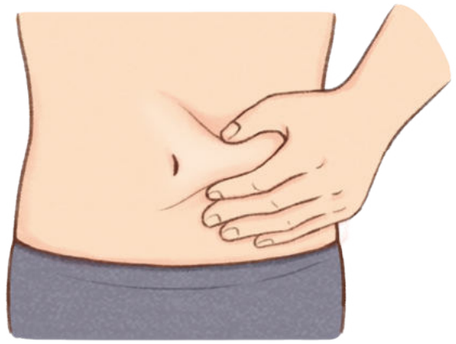
인슐린 주사의 종류

- 지속형 – 서서히 24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고 기본혈당 유지하는 약물로, 1일 1회 매일 같은 시간(자기전이나 아침 식전)에 투여합니다.
- 속효성– 단시간내에 바로 효과 나타나고 식후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로, 식전 30분에 투여합니다.
- 그 외 초속효성, 중간형, 초지속형,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 인슐린 펌프 치료란?

-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주는 인슐린펌프 장치를 이용하여 생리적인 인슐린 분비 패턴과 유사하게 몸 속에 인슐린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하게 상의한 후에 나에게 맞는 약물요법 방법을 사용 하도록 합니다.

먹는 당뇨약이 효과가 없어서 의사선생님이 인슐린 주사를 권유하셨는데 자가투여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요.



- 매일 주사가 필요하므로 주로 자가로 주사를 하며 병원, 보건소 방문 및 교육 자료 등을 통해 초기에 올바른 자가 주사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정확하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슐린을 자가투여할 때의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1

투여 전과 투여 후에 손위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바등깍가엄톱**)손바닥-손등-손깍지-손가락-엄지손가락-손톱]

02

주사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펜주사기의 뚜껑을 열고 주사기 앞쪽 고무마개 부위를 알콜솜으로 닦아주는 것입니다.

03

인슐린은 근육주사가 아니고 피하주사(피부 바로 아래)이므로 바늘이 짧으며 피부와 직각이 되도록 바늘을 잡고 주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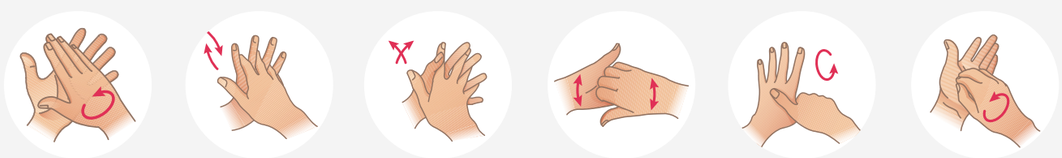
04

천천히 주사한 후에 주사바늘을 피부에서 뺄 때는 재빨리 빼고, 주사부위는 알콜 솜으로 살짝 누르며 문지르지 않습니다.
(인슐린은 약물이 조직 속으로 천천히 흡수되어야 하므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05

몸이 아프거나 혈당수치가 평소보다 높은 날에 스스로 판단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거나 용량을 줄이지 말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문의 합니다.

(바등깍가엄톱)올바른 손씻기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인이 인슐린 자가주사를 할 때 주의할 점!

- 인슐린이 근육에 들어가면 흡수가 빨라져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체 장애로 인하여 피하지방이 적은 부위는 주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러므로 인슐린 자가투여 시 손으로 피하지방을 잡아서 인슐린을 주사하게 되는데, 피하지방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적절하게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반드시 인슐린 투여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 혈당관리 기록표

날짜	혈당 수치 기록							식사	운동	약물	저혈당 경험
	아침		점심		저녁		그 외				
	식전	식후 2시간	식전	식후 2시간	식전	식후 2시간	시간				
예시)											
2021. 10.25	135	180	142	176	124	182	-	3회	30분	인슐린 28단위	없음

5 저혈당은 무엇인가요?

+ 저혈당이란 무엇인가요?

인슐린 과다투여, 식사시간이 늦어짐, 식사량이 부족, 과도한 운동, 음주 후, 구토나 설사 후, 혈당강하제 과다복용 등의 원인으로 혈중 포도당이 정상 수치 이하로 감소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 저혈당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요?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세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저혈당의 위험요인이 됩니다.

식사

- 식사 또는 간식이 지연되거나 건너 뛴 경우
-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 빈 속에 술을 마신 경우
- 당질 섭취량이 부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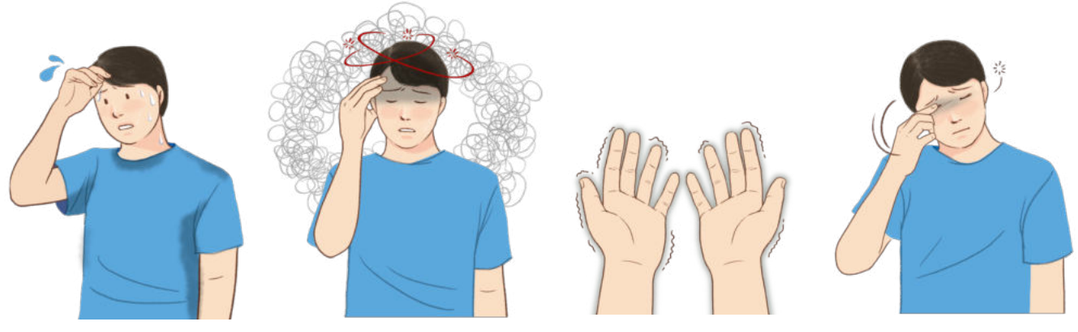
운동

- 빈 속에 운동을 하는 경우
- 장시간, 고강도로 운동을 한 경우
- 운동에 따른 간식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

약물

- 인슐린 또는 경구약제의 용량이 많았을 경우
- 주사 시간(약물 복용 시간)이 불규칙 한 경우

+ 저혈당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손가락 저림, 가슴 두근거림, 얼굴 창백, 빈맥(빠른 맥박), 발한(땀 흘림), 불안, 어지러움, 두통, 무기력, 피곤함, 손이 떨림, 시야 흐림,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저혈당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의식이 있는 경우)

1단계 1단계 저혈당 증상을 확인 후 당분 음식을 섭취합니다.
(당분음식 : 오렌지쥬스, 사탕, 탄산음료, 설탕물 등)

2단계 즉시 혈당을 측정합니다. 혈당 70mg/dℓ 이하로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3단계 10~15분 휴식 후 혈당 측정하여 계속 혈당 70mg/dℓ 이하인 경우 같은 양의 당분 음식 섭취하고, 그 이상인 경우 단백질이 들어간 간식을 섭취합니다.
(햄샌드위치 반 개, 땅콩버터 샌드위치 등)

+ 저혈당일 때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음식

초콜렛, 도넛, 피자, 쿠키, 케이크, 견과류, 아이스크림 등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못합니다.

+ 저혈당일 때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적합한 음식

단순당질(반 컵~한 컵의 오렌지 쥬스, 3~5개의 사탕, 반캔 정도의 탄산음료)의 음식을 섭취합니다.

* 단순당질은 혈당이 적절할 때는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주의합니다.

+ 저혈당을 자주 경험한다면

※ 저혈당을 자주 경험한다면,
응급 당분 음식과 당뇨인임을
표시하는 인식표를 항상 휴대하고,
꼭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당뇨 인식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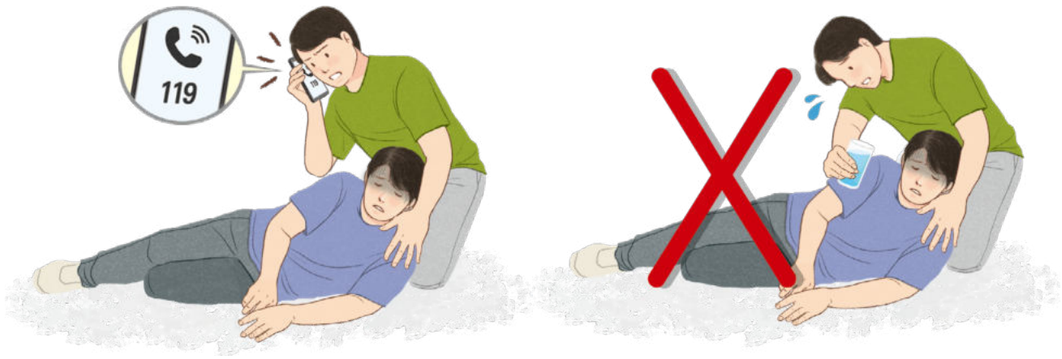
저는 당뇨병 환자입니다

의식이 불안정하면 즉시 아래의 당분을 먹여주시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주신 뒤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세요

저혈당 대처 음식 : 오렌지 쥬스, 콜라 및 사이다, 사탕 등

비상 연락처 : 000-0000-0000

+ 혈당수치의 이상으로 병원에 가야할 경우는 언제인가요?



01 저혈당 수치일 때

저혈당으로 의식저하나 혼수상태일 경우에는 곧바로 119 연락합니다.

* 혼수상태일때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음식물 섭취는 금지합니다

02 고혈당 수치일 때

반대로 혈당수치가 300mg/dℓ 이상으로 2일 이상 높게 지속되는 경우에도 의사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이 알려주는

장애인이 저혈당으로 의식저하일 때, 119에 연락한 후에 이렇게 해주세요!

- 의식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민감하지 않은 부위(맨살이 아닌 팔뚝이나 어깨의 측면 등)를 두세번 두드려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 장애로 인해 신체 마비가 있어 감각이 없는 부위도 있으므로 얼굴 위주 로 자극을 주어 의식확인을 합니다.
-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경우 낙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공간에서 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세로 눕히도록 합니다.
- 장애로 인한 경직이 있는 경우, 기도확보를 위해 강제로 사지의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혈당관리

발행일 2021년 11월 9일

참고문헌 질병관리청
대한당뇨병학회

감수 영남권역재활병원 고성화 교수, 허성철 교수

펴낸이 신용일 센터장

발행처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소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영남권재활병원 1층

홈페이지 www.경상남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org

디자인 인정기획

ISBN 979-11-973690-3-2

본 자료는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게재된 그림 및 정보의 무단복사·복제를 금하며,
본 자료의 추가 신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세요.

자료 문의
055)360-4130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 상 남 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지정되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입니다.